

주문형 시대에 대한 우리의 준비

주 기 인 박사 통신개발연구원

통신과 방송의 융합

각 영역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던 통신과 방송이 이제 상대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 양자를 구분했던 전통적 장벽이 기술발달로 인해 허물어져 감에 따라 다른 영역외의 상황이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또한 양자를 구분했던 영역기준에 맞지 않는 서비스들이 출현함에 따라 이들을 어디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어려움도 생겼다. 주문형 시대는 바로 이러한 상황과 함께 출현한 하나의 커다란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기존의 전화로 대표되었던 통신은 이용자 상호간의 양방향성과 그 전달내용의 사적성격으로 인한 비공개성,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때에 이용할 수 있다는 능동적인 참여성의 특징을 가졌다. 반면 라디오나 TV로 대표되는 방송은 전통적으로 체계적인 조직체인 중앙의 방송국에서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유익하고 흥미롭다고 생각되는 내용물을 적절히 선정하여 전달분배하는 구조를 가졌다.

전달내용도 공중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개적일 수밖에 없으며, 수신자의 참여성은 지금껏 제한되어 있어 단지 방송단말기를 키거나 끄거나 또는 몇몇 채널 중 하나를 선정하는 것 이외에는 전달내용 및 전달 과정에 대한 일반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인 상황이 그 특징이었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으로 통신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유선을 통해서 특정인끼리의 일상적인 정보전달이라는 커뮤니케이션 편의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었으며, 방송은 제한된 공중 주파수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보처리에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편성한 프로그램 및 유관정보를 전달

하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정보 전달매체라는 인식이 있어왔다.

물론 요즘 같이 무선을 이용한 이동통신이 사회전반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통신의 전달매체를 유선으로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방송 또한 초의 케이블TV 방영에서도 보았듯이 반드시 공중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밖에 무궁화호의 발사와 함께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위성방송이 위성체를 포함한 하나의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통신과 방송 양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 역시 통신과 방송의 영역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보이는 또 하나의 예가 된다. 이렇듯 전달매체를 통해 양 영역을 구분했던 전통적 기준은 이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주문형 시대가 열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문형(On-Demand)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VOD(Video-On-Demand)와 같은 통신과 방송의 경계영역적 서비스들의 출현과 이용을 의미한다.

이제는 방송도 이미 공포된 편성일정에 따라 제공되는 것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가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을 주문하여 받는다. 예를 들어, 저녁에 직장에 특별한 일이 있어 보고 싶은 뉴스나 영화프로그램을 놓쳤을 때 퇴근 후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 다시 주문해서 볼 수 있는 세상이 방송과 통신이 융합한 상황에서의 주문형 시대인 것이다.

위의 예는 뉴스(News-On-Demand)와 영화(Movie-On-Demand)를 주문하는 주문형 정보시대가 제공할 다양한 혜택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다. 이를테면, 이제는 원하는 프로 뿐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다른 상품처럼 주문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우리 나라 가정의 가장 큰 관심 중의 하나인 교육도 주문하여 받을 수 있다.

말하자면, 이제는 직접 교육의 현장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기보다는 적당한 시간과 장소에 원하는 교육을 선택해서 주문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서비스도 주문형이 될 수 있으며, 진료도 멀리서 특별히 주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밖에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오락용 게임의 주문과 함께, 홈쇼핑과 홈뱅킹 등도 주문형 시대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보혜택들이다.

이러한 확대된 정보혜택은 네트워크를 통한 양방향 서비스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많은 정보를 빠른 속도로 전달할 수 있는 소위 광대역·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과정에서, 망기술의 발전은 볼거리 있는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다수의 채널과 함께 전송할 수 있게 진전되었으며, 단순히 음성만을 전달하던 공중전화선도 이제는 영상도 전달할 수 있는 종합망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특히 동축 케이블과 광하이버는 망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서 과거에는 공중파를 통해야만 절단할 수 있었던 방송과 같은 많은 양의 정보를 유선망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의미있는 것은 이제는 정보의 단순 분배 차원에서 벗어나 정보전달 과정에 수용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포함되는 양방향성을 이루게 된 것이다.

앞으로의 정보사회상과 선진국의 대응

다가올 고도 정보사회에서 정보 자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조직은 성공적인 삶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새롭지도 않다. 특히 정보의 적극적 활용이란 측면에서 주문형 시대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왜냐하면, 앞으로 정보는 스스로가 주문하여 갖는 것이지 더 이상 주는 데로 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러한 사회에서는 개인 스

스로가 정보를 그 취향과 필요에 맞게 주문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이는 다시 말하면 본인 스스로 정보 창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문형 정보 처리의 한 예로 검색작업을 들 수 있다. 검색이란 수많은 정보가 집중된 곳에서 자신의 니즈에 맞는 정보를 취사선택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자료검색에 한정되어 있던 이러한 정보검색이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정보전반에 적용되었을 때 진정한 주문형 시대가 도래함을 의미한다. 이렇듯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점에 제공받을 수 있는 주문형 시대가 온다는 것은 국가적 입장에서 보면 국민 개개인의 잠재력을 개발 강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상을 의미하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정보활용이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문형 정보사회는 국가의 망을 포함한 정보사회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고도 정보화사회의 취지에 맞는 사회상이다.

그러나 이렇듯 바람직한 사회가 기존 규제 및 제도의 경직성과 이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담보된 인식에 의해 그 발전이 저해를 받고 있다면 이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저해요인 중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로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영역내의 고집과 또한 영역간의 이해갈등이 있으며, 또한 급변하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점이 있다. 말하자면, 제도적 틀의 명예와 담보적 인식이 우리가 맞아야 할 주문형 시대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을 저해하는 범규제와 제도적 문제 등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님이 오히려 다행스럽다. 사실상 미·일 유럽의 선진국들에 의해 이러한 문제가 심각히 거론되어 왔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긴 구분된 영역발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최근 정책 변화과정을 통해서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노력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예는 보다 확연하여, 이는 간단히 통신과 방송의 영역구분을 없애려는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망 기술발전에 따

라 불필요한 저해가 되고 있는 사업영역 구분을 없애으로써, 전화와 케이블 TV 양분야에 경쟁을 도입하여 경쟁력있는 사업체들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을 함께 관할하고 있는 일본의 우정성도 이에 대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화사업자와 케이블사업자간의 사업영역 구분을 개방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각 영역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향후 주문형 정보시대의 앞선 실현을 노력하고 있다.

유럽(EU)의 경우 역시 전체 공동체 차원에서 다가올 주문형 정보화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수립 및 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모두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사업자들의 사업력을 활성화시켜 고도 정보화사회를 조기에 달성하고자 하려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의 준비

이렇듯 고도의 주문형 정보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 본다. 우선 주문형 서비스의 전송수단은 네트워크(망)이다. 요구되는 다양한 서비스가 망을 통해 전달된다는 점에서 전송망의 구축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정부가 추구하는 초고속망 구축의 조기 달성은 그 정당한 이유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는 망을 지나다닐 쓸만한 내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이른바 응용서비스라고 하는 네트워크에 있어서 소프트한 측면의 발전의 필요성이 주창된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아무리 외형적으로 멋있는 기기도 기기 자체로는 우리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망과 기기는 이용되는 내용물(Contents)에 의해 그 효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우선 시간이 걸리는 망부터 구축하고 나중에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생각해 보겠다는 접근은 이러한 관점에서

제고되어야 한다. 특히 주문형 정보시대에서는 응용 서비스에 망만 갖는다는 것이 혹시 단지 성가신 전깃줄 몇 가닥 더 갖는 것 밖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산업은 일반적인 소비재 산업과는 달리 그 자체 소비로부터의 효용 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징을 갖는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로부터의 부가가치는 바로 망을 통한 정보이용에 관련되어 있다. 단순한 통화수단에서 이제는 망을 통한 정보의 주문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내용물을 포함한 소프트한 측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는 주문형 정보시대의 도래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인자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야 하는 가를 시사하고 있으며, 결론은 바로 어떻게 양질의 소프트를 공급할 수 있는 가로 귀결된다.

이는 주문형 서비스분야 자체의 활성화 뿐 아니라 망 고도화를 위해서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전략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네트워크를 쓸만한 도구로 만드느냐 하는 작업의 대부분은 사람이 하게 마련이며, 이를 위해 이 분야에 있어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갖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그러나 물질 자원이 부족을 인적자원으로 극복해야 할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지향해야 한 정보화사회의 달성자체를 위해서도 조금도 미룰 수 없는 일인 것이다.

특히 인력문제에 있어서 국가는 장기비전과 정책시안을 가지고 민간 부문에 인력수급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생산과정에서 실제 그 부족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기업은 정책방향을 고려 스스로의 대책을 마련하고 인력의 자체양성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개인 또한 스스로 다가올 고도 정보화사회를 맞이해 적극적인 정보마인드를 갖고 스스로를 대처해 나가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